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1호 【루계 제23313호】 주체99(2010)년 12월 27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일과 4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인터네트가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최근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무산광산에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적기개를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의 식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될 식료공장을 군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군안의 인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보도하였다.

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단천마그네샤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자원,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경제를 건설해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주체화는 조선경제의 절대불변의 진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경소마그네샤를 가지고 만든 기와를 보시고 그 질이 대단히 높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저탄소경제, 록색경제방향으로 나가고있는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맞게 록색건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단천광산기계공장과 단천항건설장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나이제리아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나이제리아 에누구에 있는 엔. 케이.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진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뿐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선군정치로선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에 있어서 보편적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출판사는 김정일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기념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이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낄것을 기대하면서 그이의 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출판한다.

발행식이 5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 로렌스 우데추쿠는 발행식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일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19돐을 뜻깊게 맞이하는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날을 맞으며 김정일각하의 로작을 출판하는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이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누리에 빛내이자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 38돐이 되는 날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시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국가건설업적을 되새겨보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세워지고 공고발전된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과 전통을 창조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해방된 우리 조국땅에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변이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을 마련하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조선으로 누리에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우리의 국가기구체계를 국방위주의 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헌법이라는것을 천명하도록 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사회주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선군의 기치밑에 일심단결을 비상히 강화하며 우리 조국을 강성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선군혁명력사의 갈피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오늘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김일성조선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애국충정과 위대한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김일성민족의 후손만대가 행복을 누려갈 참다운 삶의 터전이라는 드팀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고마운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 불타는 애국충정을 다 바쳐야 한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신대로 풀어나가며 수령님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유일한 좌우명으로 삼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며 백승의 기치이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어 사회주의도 있고 조국번영의 미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밑뿌리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제반미대결전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고도의 경각성을 높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원쑤들의 책동에 대하여서는 그 자그마한 요소도 묵과하지 말고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성실히 리행하며 우리 식의 고상한 생활양식과 생활규범대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특히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일군들이 누구보다 모범이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의 법무활동을 옳게 장악지도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의 사회주의법이 혁명의 붉은기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당이 안겨준 배짱과 담력, 불굴의 정신력으로 힘차게 투쟁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우리는 김철로동계급과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 《련하기계》개발자들을 비롯한 대고조시대 창조의 기수들처럼 자기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대승리,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을 련이어 안아와야 한다.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과학기술로 대고조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이고 주체화, 현대화의 지름길도 열어놓아야 한다. 경공업혁명,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로숙하고 세련된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높은 애국적열의 발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빛나게 장식한 올해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속에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높은 애국적열의를 발휘하며 농업생산투쟁에 한몸바치는 긍정적소행들이 수많이 발현되였다.

평양시농근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수도의 농근맹조직들과 동맹원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기념궁전관리에 필요한 많은 관리도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평안남도농근맹위원회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고향집 샘물터들에서 리용할 조롱박을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하여 몇해전부터 조롱박씨를 도안의 시, 군의 초급농근맹조직들에 나누어주고 조롱박을 정성껏 키우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였으며 올해에만도 수천개의 조롱박을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들에 보내주었다.

곽산군 석동리초급농근맹위원회에서는 10여년전부터 자체로 양묘장을 만들어놓고 나무모들을 키우는것과 함께 리안의 동맹원들이 집주변에 아름다운 꽃들과 꽃관목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수천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12만여그루의 꽃관목을 만경대혁명사적지와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에 심었고 관리도구도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린산군 석련리초급농근맹위원장 최광훈동무를 비롯한 리안의 농근맹초급일군들은 지난 4월 혁명사적지를 참관하고 돌아오던중 산불이 일어난것을 발견하고 뛰여들어 1 000여정보의 혁명사적지주변 산림을 지켜내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어랑군 초평과수농장 농근맹초급단체위원장 김광호동무는 초급단체의 농근맹원들과 지난 2월 영농작업을 하던중 화재가 난 한 소학교에 뛰여들어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왔다.

올해 농근맹조직들과 농근맹원들속에서는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성심성의로 돌봐주는 소행들도 높이 발휘되였다.

황주군농근맹위원회에서는 지난 16년간 해마다 건군절을 비롯한 명절, 기념일들에 많은 원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초소군인들에게 보내주었으며 올해에도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숙천군 열두삼천리인민병원 의사 정경옥동무는 14년전부터 자기 집 터밭을 약초밭으로 만들고 해마다 량강도에 찾아가 험준한 산발을 오르내리면서 자기 지방에 없는 약초들을 채취하여 보약들을 만들었으며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었고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의 건강도 성심성의로 돌봐주고있다.

숙천군 대성리인민병원 의사 문창오동무도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약초들을 채취하여 만든 보약들과 가정에서 기른 많은 집짐승을 군인들과 리안의 영예군인, 전쟁로병들, 제대군관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친혈육의 정을 다하여 돌봐주고있다.

올해 각지 농근맹원들속에서는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서도 애국적소행들이 발휘되였다.

재령군 삼지강리 농근맹원 서영남동무는 지난 5월 이미 전부터 앓고있던 병이 도져 몸이 몹시 불편하였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시는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농장원인 내가 어떻게 편안히 누워있겠는가고 하면서 작업현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다가 순직하였다.

구성시 기룡리 농근맹원 문춘봉동무도 지난 5월 심한 병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였지만 모내기철에 물보장을 맡은 내가 어떻게 휴식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양수장에 나가 일하다가 순직하였다.

은률군 가천리 농근맹원 리재빈동무는 지난 5월 밤을 꼬박 밝히며 뜨락또르논갈이작업을 보장하고도 휴식할것을 권고하는 농장일군들에게 바쁜 영농전투시기에 어떻게 휴식하겠는가고 하면서 계속 논갈이작업을 보장하다가 순직하였다.

올해 각지의 농근맹조직들과 농근맹일군들, 농근맹원들속에서 발휘된 이러한 소행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와 불굴의 정신력의 숭고한 발현으로 된다.

본사기자 로주봉

다음해농사차비를 본격적으로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

황해북도안의 농촌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는 1.3배, 소석회생산은 1.2배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어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와 시, 군의 일군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우리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농장들에 나가 다음해농사차비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농업부문 일군들이 올해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농사차비의 중심을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지도사업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였다.

시, 군들에서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에서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거름생산에서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중심으로 틀어쥐고 내밀수 있는 새 방법들과 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 소석회생산을 놓치지 않고 내밀어 다음해농사에서 정보당 소출을 높일 좋은 방도들을 알려주었다.

도와 시, 군의 일군들이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중요농장들에 나가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서흥군 범안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에 자주 나가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사차비를 착실하게 하도록 힘껏 떠밀어주고있다.

사리원시의 일군들은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미곡협동농장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시안의 모든 농장들이 이 농장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곡산군의 일군들은 군안의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자연흐름식의 새 물길이 아득히 뻗어있고 희한하게 정리된 드넓은 미루벌에서 농사를 짓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농사차비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군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정상화하는 한편 흙보산비료와 거름생산의 좋은 원료로 되는 니탄을 제때에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황주군, 연탄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은파군 강안협동농장, 황주군 철도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에서도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 떨쳐나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2단계 토지정리를 끝냈다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장에서

고산과수농장 현대화공사에 참가한 618건설돌격대원들이 2단계 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고산과수농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청춘과원으로 꾸릴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수백정보의 토지를 정리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발전을 위한 사업은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6월 또다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고 수천정보에 달하는 과수원을 현대화된 청춘과원으로 꾸릴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번에 진행한 과수농장 2단계 토지정리는 수백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십km의 도로와 배수로를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618건설돌격대 지휘부에서는 1단계 토지정리에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적극 받아들여 2단계 토지정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펴고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각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사속도를 높여 날에날마다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떨쳐나선 함경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맨 앞장에서 달리였다. 대대장, 중대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여기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신심드높이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은 전투지휘를 정황에 맞게 짜고들고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였다. 그리하여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려단들에서는 예비부속품을 원만히 준비해놓고 기대들의 수리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강원도려단 일군들도 작업장이 널려져있는 조건에 맞게 방송선전차를 통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이 사회주의경쟁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도록 이끌었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땅이 얼기 전에 2단계 목표를 점령할 열의안고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계획된 토지정리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대대로 내려오던 고산땅의 구릉지대가 평야로 전변되고 간선도로와 포전도로, 배수로들이 새로 건설되여 그야말로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지금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현대화된 또 하나의 청춘과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준비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열의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해간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최충성 찍음

선군조국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김일성헌법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환희속에 올해 마감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맞이하는 헌법절,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찬란히 빛을 뿌리는 **김일성헌법**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이고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정권을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의 무기로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헌법의 새 력사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영원한 삶의 요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시작되고 마련되였다.

일찌기 주권문제를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 해방후 북반부에서 이룩된 국가건설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주체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1960년대 중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새 헌법의 제정을 발기하시고 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제기되는 새 헌법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법전문가들도 생각 못한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결론을 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일군들에게 헌법개정의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여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명확히 밝히시고 문구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고 또 다듬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배포하여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느 한 협의회에서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협의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주의건설의 일반적원칙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조항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과 교육, 대내외정책문제 등 헌법초안의 내용과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였다.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숭고한 애국의 넋이 어린 새 헌법초안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내용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주의헌법리론이 창시되고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 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민족사에 뜻깊은 장으로 아로새겨진 이날을 해마다 사회주의헌법절로, 전통적인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직접 집필하시고 발포하신 **김일성헌법**이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헌법,

정녕 여기에는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법전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가 어려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마련되고 발전완성되여온 성스러운 력사에는 사회주의법건설에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탁월한 령도가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심오한 주체의 법건설사상을 체현하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사회주의법건설사업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사회주의법을 발전시키고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가신 다음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화국주석으로 높이 추대하려는 지향과 념원이 강렬하게 분출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고, 주석이라는 말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뗄수 없는것으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으며 **김일성**주석이라는 존칭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지울수 없는것으로 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고 가장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아오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생존시와 다름없이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오직 수령님 한분만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내일것을 결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의지를 사회주의헌법에 담아 법화하도록 하시고 헌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로고속에 보충완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주체87(1998)년 9월에 열린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어버이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되였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가장 숭고한 충정,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드팀없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게 되였으며 이 땅에는 수령님의 력사가 영원히 흐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영원한 정치헌장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는 우리의 **김일성헌법**!

뜻깊은 헌법절을 맞는 천만군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며 이 땅, 이 하늘아래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이 실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대대손손 높이 떨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숭고한 혼연일체의 화폭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의 마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린다.

뜻깊은 올해의 정초부터 인민의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우시기 위하여 초강도강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절절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대하마냥 흐르는 이 위대한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크나큰 재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은 당을 믿고 당은 인민을 믿는 바로 여기에 철통같이 뭉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담보되여있으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올해 첫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천만군민의 가슴을 쿵쿵 울려준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생각밖에 없다. 경공업과 농업전선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새해에도 강행군을 계속하겠다. …

온 나라 인민의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날에도 이런 생각, 이런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새해 정초에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돌이켜보면 우리 장군님께서 지난해의 장장 10여만리에 달하는 초강도강행군의 신들메를 푸실 사이도 없이 또다시 올해 정초에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소식에 접했을 때 우리 인민이 얼마나 그이의 안녕과 건강을 간절히 념원하였던가.

1월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념원을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뜨겁게 느끼시였다. 그리고 인민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에서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그들의 숨결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으시였다.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인민, 그러한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싶으시여 그이께서는 초강도강행군길을 재촉하시며 지난 2월에는 비날론섬유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오시였으며 6월에는 남흥땅에서 전체 인민들에게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온 나라의 대경사를 마련하시였다.

정녕 잊을수 없다.

8000리에 달하는 외국방문의 나날에도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장군님,

무더운 삼복철의 나날에도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겨주시려고 평안북도에서 자강도에로, 자강도에서 함경남도에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불멸의 로고를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령도자의 초강도강행군에 대비약의 보폭을 맞추며 투쟁해온 인민의 충정은 온 나라에 눈부신 변혁을 안아왔으며 김철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이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온 나라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강렬해질수록 그들을 더 높이 내세워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다.

얼마전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이룩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는데 기여한 김철의 녀성들의 위훈을 조국과 인민이 다 알도록 해주시였다.

지금 온 나라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은 자기 령도자만을 걸음걸음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에 의해 끝없이 전진해온 주체99(2010)년,

우리의 혼연일체는 영원하며 이 백승의 무기로 전진하는 선군조국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한결같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김동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준엄한 항일의 나날에나 새 조국건설시기에나 변함없이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보위하신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웠다. 이에 기초하여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청봉밀영과 대사하치기, 홍기하 등 항일의 격전장들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사령부의 안전을 결사수호하신데 대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면서 실감있게 이야기해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시였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다.

로농통신원 방대삼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체득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로작전시관에서— 리진명 찍음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여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철령의 험한 산발을 넘으시여 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구분대의 여러곳을 기쁨속에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교양실에 들어서시다가 복도벽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진문헌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여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은 한평생 전사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그이를 우러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들을 놓고 군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하고있는것만 보아도 이 구분대에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라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모든 일이 잘될수 있다고, 군인들의 사상만 발동되면 무슨 일이나 다 잘할수 있다고 하시며 이곳 구분대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하기때문에 모든 일이 잘되는것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보시고도 구분대의 사상교양사업실태를 대번에 헤아리시고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지휘관들은 뜨거운 격정속에 다시금 새겨안았다.

하나의 훈련을 보시고도

어느해인가 인민군대의 어느 한 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였다.

자나깨나 뵙고싶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훈련을 진행하게 된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들은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이 넘치는 군인들의 훈련을 마지막까지 다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땀에 젖은 군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훈련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사랑의 기념사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섬방어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섬방어대의 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초소의 병사들은 허전한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온 장령, 군관들이 전투복장을 하고 그들의 근무장소로 달려왔다.

섬방어대로 떠나오시기 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섬방어대에 가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행일군들에게 기념촬영시간에 동무들이 경계근무를 대신 서주면 모든 전사들이 다 사진을 찍을수 있다고, 그리고 군관의 안해들과 부모들도 기념촬영에 참가시켜야겠다고 미리 일러두시였던것이다.

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섬초소에서 조국의 안전을 지켜가고있는 군인들과 군관가족들의 마음속생각까지 헤아리시고 몸소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깊은 조치를 전달받은 병사들과 군관가족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렇게 되여 섬방어대초소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병사들을 대신하여 경계근무를 서는 류다른 화폭이 펼쳐지고 섬초소군인들과 가족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용진

뜨거운 추억을 안으시고

해마다 12월이면 뜨거운 추억을 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며 절절한 그리움에 눈굽적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어머님의 숭고한 뜻을 빛내여가시는 거룩한 자욱으로 수놓아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체98(2009)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땅 회령을 찾으시였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고향인 회령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늘 마음속에 안고 사시는 그리움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산덕에 모셔진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항일전의 그날처럼 포연이 서린 군복에 오각별 빛나는 항일모를 단정히 쓰시고 소담하게 피여난 진달래포기를 안으시고 기쁨의 미소를 짓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우러러보시며 어머님의 한생은 비록 짧았지만 참으로 값높은 삶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은 한가정의 어머니이기 전에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 가장 친근한 동지이시였으며 조국의 딸, 인민의 딸이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신후 깊은 추억을 안으시고 어머님의 고향집 사립문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고향집에 오니 감회가 깊어집니다, 나는 어머님이 그리워질 때마다 회령에 와보고싶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에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을 지도하면서 렬차를 타고 회령땅을 여러번 지나다녔지만 그때에도 시간을 낼수 없어 여기에 들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나직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회령고향집은 어머님에 대한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유서깊은 집이라고, 어머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나 어린시절을 보내시였다고, 어머님의 일가는 너무 가난에 쪼들려 자기 집도 없어 이렇게 남의 집 웃방에서 결방살이를 하였다고, 지금사람들은 이런 집에서 위대한 혁명가가 탄생하였다고 하면 잘 믿어지지 않을것이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일가분들의 체취가 어려있는 살림도구들과 농쟁기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고 교양마당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향집앞에 서시여 점도록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어린시절 발자취가 어려있는 오산덕에 가보고싶다고, 어머님이 그리울 때마다 회령을 생각하군 한다고 하시며 어머님이 바라시던대로 자식된 도리, 전사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떳떳한 마음으로 회령땅을 찾으려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대한 **김일성**조선으로, 존엄높은 **김일성**민족으로 더욱 빛내여주시고 력사의 땅 회령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한없는 그리움과 추억의 빛이 어려있었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친 걸출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삶이 그처럼 빛나고 값높기에 오늘도 우리 인민은 어머님을 못 잊어 뜨겁게 추억하며 그리워하고있는것이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여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실 의지를 안으시고 회령시안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로현찬

붓대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총대와 함께 붓대를 중시하시고 그 역할을 높여 우리 혁명을 보다 큰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오늘은 조선인민혁명군 대내주간신문 《종소리》가 창간된 때로부터 73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익측도 후방도 없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속에서도 수많은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시여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일제를 격멸하는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있습니다.》

주체26(1937)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당거우밀영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동기군정학습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내주간신문 《종소리》를 창간하시였다.

힘있는 붓대포의 위력으로 전체 인민을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켜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 열정이 혁명적출판보도물인 《종소리》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재주가 뛰여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최경화동지를 《종소리》의 주필로 임명하시고 그가 신문의 삽화를 대부분 말아그리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직접 신문에 실을 원고들을 밤을 새워 집필하시고 유격대원들의 글도 친히 수정가필해주시며 신문편집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종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로 키워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결사대로 준비시키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웠다. 신문에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새로운 로선과 방침들을 제때에 해설하는 글들을 실었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군정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치군사학습자료들과 교양자료들을 많이 싣군 하였다.

《학습도 전투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등의 정치군사학습자료와 《일제놈들은 장백땅을 어떻게 불살라버렸으며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검거학살하였는가》 등 일제침략자들의 만행을 폭로한 수많은 기사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하였다.

신문은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글들을 많이 편집한것이 특징적이였다. 《나는 왜 유격대에 입대하였는가?》, 《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겠다》 등 유격대원들의 생활을 내용으로 한 수많은 기사들이 실렸다. 참으로 《종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정치군사학습의 믿음직한 방조자였고 부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위력한 사상적무기였으며 대원들을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교양육성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종소리》는 마당거우밀영에서의 동기군정학습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종소리》와 같은 예리하고도 위력한 사상적무기가 있었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수많은 전투들에서 승리를 떨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종소리》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간하신 혁명적출판물의 고귀한 전통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다.

지난 2월에 성대히 열린 전국기자, 언론인대회는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린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을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머지않아 이 땅우에 강성번영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확증하는 력사적인 회합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온다.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을 치차라고 한다면 지식인들, 문필가들을 상징하는 붓대는 윤활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치차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인차 마모되는것처럼 문필가들이 없으면 혁명과 건설이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붓대가 있어야 혁명이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수 있습니다. …

위대한 정치원로, 걸출한 문필대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을수 있는 귀중한 명언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문필가들에 의하여 혁명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한다는 독창적인 붓대철학을 내놓으시고 그들을 시대의 참다운 나팔수로 내세워주시는 희세의 위인, 탁월한 정치원로이시다.

총대와 함께 붓대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내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철혁

조선의 강철기둥은 이렇게 솟구친다

뜻깊은 올해를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말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시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신 때로부터 어언 1년이 지났다.

이 나날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전반적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쳐 생산을 무려 2.7배로 높이였으며 년간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수행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안아온 김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야 하는가.

지난해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뜨겁게 불타고있었다. 그러나 례년에 없이 들이닥친 강추위로 하여 많은 난문제가 제기되였다.

어느날 밤 기업소구내의 철길로는 숱한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다.

《빨리빨리. 자, 이쪽으로!》

퇴근시간도 훨씬 지났지만 모두가 연료하차전투에 떨쳐나섰다. 시간을 다투며 얼어붙은 연료를 한덩이, 한덩이 떼내던 그 전투는 정말 간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며칠품은 들어야 할것으로 예견했던 하차작업은 단 두시간만에 끝났다.

이때만이 아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가로세로 뻗어간 배관들마다에 초병마냥 지켜서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가 심장이라면 이건 피줄이나 같지 않소. 어떻게 하나 지켜내야지.》

한 평범한 용해공의 말이였다. 그는 자기 교대를 마치고 제 집구들목이 아니라 여기 한지에서 밤을 밝히고있었다. 그만이 아니라 일군들도 기술자들도 모두가 총발동되여 설비피해를 막기 위해 구내에 진을 쳤다. 한몸이 그대로 불길이 되고 심장이 그대로 불덩이가 되여서라도 다진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정신력의 분출로 하여 기업소에 뻗어간 그 무수한 피줄기들은 얼어들지 않았으며 김철은 드디여 솟구치기 시작하였다.

지난 2월말 용광로직장에서는 뜻깊은 2월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이제 몇차지의 쇠물만 더 뽑으면 되는 때에 2호용광로 출선구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

《모두 물러서라!》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지만 용해공들은 출선구를 향해 맞받아나아갔다. 그 모습은 불뿜는 적의 화점을 향해 육박하는 리수복영웅의 최후장면과도 같이 비장하고 숭엄한 화폭이였다. 얼마후 다시금 주홍빛쇠물이 쏟아져내릴 때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그들의 달아오른 얼굴마다에서는 땀과 함께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올해 김철의 구내길에는 류달리 많은 꽃들이 심어져 그윽한 향기를 풍기였다. 쇠장대를 다루던 크고 투박한 손으로 애리애리한 꽃모들을 정히 심고 가꾼 김철로동계급의 마음속에 간직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였다.

어버이장군님만을 그리며 따르는 심장의 불, 충정의 불, 바로 이것이 김철로동계급이 세차게 분출시킨 정신력의 핵이였고 근본바탕이였다.

그 거세찬 불길에 의해 년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생산계절인 겨울철에 김철의 로동계급은 극한계선을 전격적으로 돌파할수 있었으며 생산의 앙양기에도 이룩할수 없었던 높은 실적을 내고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삼가 올리였다.

사나운 겨울을 밀어내고 찾아든 따스한 봄날 김철땅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련합기업소에 찾아오시였던것이다.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는 기업소의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에 호소문을 보낸 김철의 로동계급이 다르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충정은 이렇게 기적과 승리를 낳았다.

누구나 김철에 오면 쇠물폭포에 반하군 한다. 그러나 그밑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 생산적앙양의 불길,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압연강판들의 줄기찬 흐름밑에는 강철로 당을 받드는 충직한 인간들의 생의 흔적이 뿌리로 뻗어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올해에 총공세의 앞장에 선 김철로동계급은 생각하는 품부터가 달랐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주체화, 현대화의 불길높이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자!

이런 불타는 결의드높이 김철의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또 하나의 소리없는 결사전을 벌리였다.

그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방대한 량의 기술자료작업, 연구방향의 모색과 탐구, 실패와 장애를 무릅쓰고 진행된 수십차례의 시험…

하나의 시험결과를 얻기 위해 사선의 고비에 뛰여들어야 하는 때도 있었다.

지난 7월초 주체철생산을 위한 시험현장에서는 긴장한 한초한초가 흐르고있었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한초를 한시간, 하루맞잡이로 느끼며 시험결과를 기다리고있는데 다급한 소리가 울리였다.

《대차가 탈선됐다!》

긴박한 정황이였다. 연구집단성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로속에 뛰여들려 하였다.

《안돼. 죽자고들 그래?》

누군가 막아섰지만 추상같은 웨침이 울려나왔다.

《목숨이 문젭니까? 이걸 놓으십시오.》

어머니조국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 바치고바쳐온 성실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시험에서 성공한것이였다. 현행생산을 계속 내밀면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동시에 벌어졌다.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전투장에서는 김철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려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이 무섭게 분출하였다. 수백매의 설계도면이 불과 며칠사이에 완성되였고 드넓은 전투현장에서는 육중한 강철구조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뻗어나갔다. 마침내 무수한 불꽃을 날리며 주체의 쇠물이 쏟아지는 또 하나의 광경이 철의 기지에 펼쳐졌다.

진정 김철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며 불사신처럼 싸워 열간압연직장 3호가열로 개건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전투원들,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묵묵히 강철증산에 이바지한 판망보수직장과 산소2직장 로동자들의 투쟁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강철2직장의 전투원들이 1분, 1초를 어떻게 단축하며 새 강종생산에서 단번성공하였는가를 우리는 여기에 다 전하지 못한다. 눈보라 울부짖는 야밤에 높고낮은 고개들을 넘나들면서 정광수송관을 지킨 순회공들을 누가 보았으며 묵묵히 궂은일, 마른일에 몸을 적셔온 보수부문 전투원들의 수고를 그 누가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고결한 충정, 일단 하겠다고 한것은 죽으나사나 해내고야마는 강의성, 이것이 김철로동계급의 정신력이다.

바로 그 정신력에 의해 김철에서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는 특대사변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립경제를 밑받침하는 거대한 강철기둥이 더욱 든든히 뿌리박게 되였다.

지금 김철로동계급에게는 무서운것이 없고 두려운것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는 김철의 로동계급은 앞으로도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충성

우리의 힘과 기술로 완성한 주체철생산전투장에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집단적혁신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

자강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자강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집단적혁신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투적기백과 정열에 넘친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서 기세를 올리고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야 온 나라가 들끓고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을 청년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동맹조직들에서 출판물들에 실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기사와 사론설, 정론들에 대한 독보와 그를 통한 실효모임들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전국청년해설원들의 화선식선동경연, 모범적인 초급선전일군들의 경험발표회 등 청년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이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청년대중속에 들어가 지난 천리마대고조시기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강성대국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려나갔다.

시중군 연평리에 살고있는 청년동맹원 김철준동무가 불길에 휩싸인 어느 한 집에 서슴없이 뛰여들어가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수령결사옹위의 산 모범을 보여준것을 비롯하여 희천시의 수백명의 중학교졸업생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고 도적으로 수천명의 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희천발전소건설장 등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들에 달려가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 사실은 도청년동맹위원회의 힘있는 정치사업이 어떤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을 키워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청년돌격대활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한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도안의 중요전투장들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짜고들고있다.

자강도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송원군 온고개공사와 동신군 통학고개공사, 강계청년공원 유희장건설과 희천발전소건설장 주변에 전개된 침수지역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였으며 홍주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도안의 10여개 대상공사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기술혁신청년돌격대활동과 주요영농시기에 따르는 농업부문 청년돌격대활동도 힘있게 내밀어 근 100명의 청년들이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다.

청년들을 선군시대를 빛내여가는 청년전위로 억세게 키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도청년동맹위원회의 선전선동사업은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과학농사에 증산의 지름길이 있다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에서

증산군 풍정리를 찾는 사람마다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히 전변된 농장의 현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군 한다. 더욱 놀라운것은 전국적으로 논면적이 제일 큰 농장들중의 하나인 이 농장에서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사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장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곳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해 누구보다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농장에서 많은 면적의 논에 도입하고있는 수직파재배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직파재배를 하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수직파재배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년간 리당비서,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이 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데서 돌파구를 열고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의 하나로 보았다.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이들은 우선 수직파재배에서 나서는 물문제를 풀기 위해 수천m의 관개수로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미 있는 관개망들에 대한 정리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여기에 양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장의 수리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따라세웠다.

종자싹틔우기 역시 이곳 일군들이 수직파재배에서 중시한 문제이다. 좋은 종자를 심는 경우에도 수직파농사에서는 싹을 어느 정도 틔워 논에 뿌리는가에 따라 논벼의 성장에 주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은 지대적특성에 맞는 벼종자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 싹틔우기를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이를 위해 좋은 경험들을 자주 교환하게 하고 보여주기사업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많은 면적의 논의 씨뿌리기를 적기에 와닥닥 끝내기 위해 수직파기계를 새로 창안하였으며 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살초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씨뿌리기가 시작되였을 때에는 농장의 모든 일군들이 한개 작업반씩 맡고 내려가 농장원들이 수직파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밤을 지새우며 논물관리도 하였다. 이런 고심어린 노력은 그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농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로력을 가지고 적기에 많은 면적의 논에서 씨뿌리기와 물대기, 김잡이 등 영농공정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논면적이 많아 풍정리의 모내기가 끝나야 전국적인 모내기가 끝나고 풍정리의 가을걷이가 결속되여야 전국적인 가을걷이가 끝나는것으로 생각하던 어제날의 관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

오늘 이곳 농장은 과학적인 경영방법과 과학농사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모든 농사일에서 종전에는 볼수 없었던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전투력있는 농장, 흥하는 농장으로 되였다.

관리위원장 한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알곡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것입니다.》

지금 풍정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신심드높이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3대혁명전위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

4대선행부문에 휘몰아친 기술혁신열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수행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창조의 큰 자욱을 뚜렷이 새기였다.

올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수많은 과학기술적성과로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3대혁명소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밑뿌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4대선행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나온 한해를 비약의 열풍, 최첨단돌파의 열풍으로 수놓아왔다.

금속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전국의 앞장에 섰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나라의 맏아들기업소에 파견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6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을 성공시키며 우리 식의 새로운 야금법으로 주체철을 생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을 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초고전력전기로의 정상조업을 위해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황철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내화물2직장 1 000t 프레스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무효전력보상장치의 고주파려과기를 새롭게 만들어 초고전력전기로의 정상조업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누구나 최첨단기술의 소유자가 되여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에 자신들의 온넋과 지혜를 다 바치자.

이것이 금속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높은 목표이고 불같은 실천이였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관건적고리를 담당한 전력공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해결해나감으로써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틀어쥔 안주, 순천, 개천 등 석탄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추공보벽관검사장치, 고질용접봉생산기술과 착암기타격부용착기술을 비롯한 60여건의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개발하여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철도운수부문에서도 비약의 열풍, 최첨단돌파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철도운수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의 주요목표를 CNC화를 비롯한 최첨단돌파로 정하고 이악하게 배우면서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그 수행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왔다.

또한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궁지드높이 철길을 중량화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한 새형의 기공구들을 많이 만들어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대고조전선들에서 요구하는 화물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실어나르도록 하는데 자기들의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두뇌전, 기술전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우리의것을 창조하라! 세계를 딛고 오르라!

이런 비상한 각오와 배짱을 안고 온 한해를 비약의 열풍, 창조의 열풍으로 이어온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날과 달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추동해온 창조와 비약의 값높은 나날이였다.

뜻깊은 올해에 눈부신 성과를 안아온 4대선행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성과에서 더 큰 성과를,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 불같은 열의를 안고 다음해의 작전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준비하고있다.

오철권

농장벌에 새겨가는 창조의 자욱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농장벌들마다에 창조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들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각지 농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높은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황해남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식의 농약과 유기농법을 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한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형제산구역 형산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평양시의 농업부문 소조원들도 실리있는 새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을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신의주시 련상협동농장,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영농물자와 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논벼비배관리방법을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소조원들은 논벼의 후반기 비배관리가 정보당 알곡소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장마철 배수로치기와 논두렁정리, 보강작업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량강도의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업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무비루스잔알감자종자생산확보체계를 완성하고 고산지대의 기후풍토와 지대적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각지 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랭해를 막고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며 포전들에서 병해충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 논벼의 이삭아지수를 늘이고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새로운 집짐승비육먹이첨가제를 연구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며 극소형풍력,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농장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고 올해 농업전선에서 비약과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

바로 이러한 성과들은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풀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농업부문의 3대혁명전위들의 불타는 창조의 열정이 안아온 알찬 열매들이다.

채인철

자기 힘을 믿고

원산구두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구두생산에서 실리있는 기술혁신성과를 거두어 현행생산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구두생산공정의 한 설비를 CNC화하기 위해 달라붙었을 때였다.

그 소식은 공장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대학을 갓 졸업한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설비의 CNC화를 실현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떨쳐나선 소조원들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불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오군 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배우고 다져온 높은 과학기술지식에 창조의 열정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바로 그런 신심과 배짱으로 소조원들은 재단프레스의 CNC화를 위해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그 나날 소조책임자 권윤철, 소조원들인 김명일, 강수민, 리대성동무들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완강한 투지전을 벌려 재단프레스 문양기의 CNC화를 성공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최첨단돌파전에로 부른 당의 부름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원산구두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두뇌전, 기술전으로 자기 힘을 믿고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였다.

본사기자

생산능력확장공사 힘있게 추진

두단오리공장에서

두단오리공장의 오리고기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능력확장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몇해전에 평양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두단오리공장에 수십개의 호동들과 먹이가공시설들을 새로 건설하여 수천t능력의 오리고기생산기지로 꾸려놓았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단오리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시고 오리고기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가금지도국과 두단오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오리고기생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두단오리공장 능력확장공사가 완공되면 백수십t능력의 동물성단백먹이생산기지와 수백t능력의 미생물효소제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발효먹이에 의한 오리고기생산체계를 세워 먹이소비를 지금에 비하여 훨씬 줄일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야외오리우리와 알깨우기실, 수의약품생산기지와 취수뽐프장, 오수정화장을 기술개건하면 오리고기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다. 그리고 구내도로와 인입도로에 대한 포장, 원림조성을 진행하여 공장안팎이 선경으로 전변되게 된다.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평양가금지도국과 두단오리공장의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부를 조직한 다음 공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힘있게 내밀게 하고있다.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공장을 현대적으로 기술개건하는데서 나서는 어려운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맡아 도와주게 하고있다.

두단오리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깊이 새겨주며 그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다그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공장의 종업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 새 기술정보교환을 원활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 종합지령실건설공사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시당위원회와 평양가금지도국의 일군들은 수시로 현지에 내려가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며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고 공사지휘부의 일군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기술개건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품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나아가는 올해의 총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헌법절을 맞이하였다.

이 뜻깊은 명절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 땅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고 빛내여주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참다운 조국입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발전완성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매 조항마다에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사상이 맥맥히 흐르고있으며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근로인민을 혁명주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국가의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운 이 위대한 법전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굳건히 담보되고 온 나라 그 어데서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은것이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우리 인민은 참으로 비참한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통치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는 비인간적이며 파쑈적인 악법에 기초하고있었다.

참된 삶의 권리를 바라는 우리 인민의 뿌리깊은 갈망을 풀어주신분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채택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서는 극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던 시기에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전의 헌법대신 사회주의 새 헌법을 만들것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감회도 새로와지는 주체61(1972)년 12월의 그날 온 세상에 선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태여난 고귀한 재부인것이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용용히 흐르는 진정한 인민의 법, 주체적인 대법전력사의 위대한 창시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도록 하심으로써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더욱 발전완성시키시였다.

주체87(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새로 수정보충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법문화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법화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 날을 헌법절로 정하도록 하시여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해주신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대법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불같은 의지를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준 이 불멸의 공적은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정녕 잊을수 없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하시고 지키고 빛내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꿋꿋이 이어갈수 있게 한 불변의 힘이고 무기였다.

류례없이 간고한 나날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무료교육제도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였으며 그로 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였다.

고난과 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안겨사는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 삶의 요람인가를 사무치게 깨달았으며 인간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하고 지켜주는 우리의 사회주의법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가를 뜨겁게 절감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인간의 모든 자주적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회주의헌법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영예와 자부심을 다시금 뜨겁게 간직하는것이다.

이 세상에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나라 공민으로 태여나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의무마저 돈에 의하여 롱락당하는 그런 불우한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나라의 공민이 되기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참된 자유와 권리를 지닌 행복한 공민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것이 인류력사의 또 하나의 총화이다.

그럴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유훈을 꽃피우고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이해도 첫달부터 마지막달까지 인민을 위한 사랑의 현지지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마음속에 불타오른다.

어버이장군님의 그 위대한 헌신으로 하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이 꽃피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굳건히 다져지며 우리 조국은 강성번영에로 힘차게 내닫는것이 아닌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를 가진 크나큰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따라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담보하는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끝까지 고수하며 영원히 빛내여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현지학습반운영을 실속있게

함흥화학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무릇 교원의 강의가 진행되는 교단은 교정안에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교정밖의 교단에서도 인재들을 키워가는 성실한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함흥화학공업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과학연구기관이며 대학교원은 교육자이면서 과학자로 되여야 합니다.》

어느날 학장방에서는 대학일군들이 다 모인 가운데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중요하게 론의된 문제는 생산단위에 조직한 현지학습반을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색감제조공정을 현장기술자들과 함께 완성하고 그들을 학위소유자로 키운 교원 전경민동무의 성과를 온 대학에 일반화하는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료해해보니 대학안의 여러 학부와 강좌들에 있는 교원들속에서도 현장기술자들을 적극 도와주고있는 소행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그들중에는 정광일학부장과 동석민, 고창일, 박건식동무를 비롯한 강좌장들도 있었고 한기범, 차달성, 박달수, 리호혁동무들처럼 경험있는 교원들도 있었다.

아직은 몇몇 단위들에서만 나타나고있는 이런 긍정적소행을 두고 일군들은 생각되는바가 컸다.

—이들은 생산현장도 자기들의 교단으로 여기고있다. 실천에서 절실히 요구하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하게 해결해주는것으로써 아주 설득력있는 강의를 과정안에 상관없이 더 진행하는셈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교원이라면 마땅히 이들처럼 자기가 서있는 모든 위치를 교단으로 생각할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마음의 불씨를 대학안의 전체 교원들과 연구사들에게 심어주자!

학장도 초급당비서도, 교무부학장과 과학부학장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졌다.

학장, 교무부학장은 대학안에서 진행하는 강의안만이 아니라 현지학습반의 강의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고 보다 현실성있게 작성하도록 요구성을 높인다. 과학부학장은 현실에 나가서 진행하고있는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연구사업정형을 수시로 학부와 강좌들에 통보해주고 가치있는 자료들을 서로 교환해보게 도와준다. 초급당비서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교원, 연구사들이 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준다. …

일군들부터 앞장서니 온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호응해나섰다.

1년 되나마나한 사이에 눈에 띄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주요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큰 몫을 맡아 해제끼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현장기술자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을 학위소유자로, 발명가로, 창의고안명수로 키워낼수 있었다.

지난 5월 이 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서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확실히 인재가 많다는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이들의 사업성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참된 교육자는 교정밖에서도 자기의 교단을 찾을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키워내는 모든 제자들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주요전선에서 당당히 한몫할수 있는 쟁쟁한 실력가, 실천가로 키우라!

이들의 경험은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있다.

백성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선교구역인민위원회에서— 김진명 찍음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자성군 운봉종합상점 지배인 복선옥동무

—내 한생 당을 받드는 길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리라.

30년전 입당할 때 다진 이 맹세를 지켜 자성군 운봉종합상점 지배인 복선옥동무는 우리 당의 상업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앞장섰다.

수십리 떨어진 곳의 척박한 땅에 원료기지를 꾸릴 때였다. 대다수가 녀성들인 조건에서 봉사활동이 끝난 여가시간에 땅을 개간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날이 감에 따라 이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짙어갔다. 언제 덕을 보겠는가고 우려하는 종업원들도 있었다.

그러는 그들에게 복선옥동무는 말하였다.

—우에서 주는것을 그대로 되받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이야 누구인들 못하겠는가. 비록 힘은 들지만 우리가 땀흘린것만큼 인민들의 기쁨이 커가고 참된 봉사자로서의 영예도 빛난다는것을 명심하자.

삽을 억세게 틀어쥐고 땅을 일구어나가는 그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은 분발해나섰다. 이렇듯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는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쓸모없던 땅을 기름진 밭으로 전변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거두어들인 원료로 해마다 많은 식료품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인민의 충복답게 살며 일하기 위해 그가 기울인 사색과 노력은 이뿐이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에서 부족되는것이 무엇인가를 자주 알아보고 그 해결을 위해 수십리 지어는 수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걷군 하였다. 우리 당에서 아끼고 내세우는 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해마다 영양식품을 마련해주자고 발기하고 실천에 옮긴것도 바로 그였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속에 종합상점의 안팎이 선군시대 맛이 나게 훌륭히 꾸려져 2중3대혁명붉은기의 영예를 지니게 된것도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도 그는 우리 지배인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르는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굳은 결의안고 입당할 때 다진 맹세대로 변함없는 헌신의 길을 걷고있다.

본사기자

사상전선의 전초병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각지 직외강연강사들과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을 비롯한 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각지 직외강연강사들과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은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연선전활동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려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일게 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 지도교원 김원일동무는 1 200여건에 1만 6 000페지에 달하는 자료집과 30여건의 강연자료를 특색있게 만들어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청강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평남일보사 기자 윤상훈동무는 해마다 도안의 탄광, 발전소, 공장, 협동농장, 건설장을 순회하면서 강연선전활동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해주금강청년제련소 실장 박영근동무는 지난 15년간 모내기를 비롯한 중요영농시기때마다 조직되는 집중강연선전대에 망라되여 강연선전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게 벌려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황해북도직맹위원회 부원 강철수동무는 협동농장, 발전소건설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600여회에 달하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원산도시건설사업소 직맹해설강사 황명희동무는 안변, 고산, 평강, 법동, 판교 등 산간오지들에 나가 110차에 연 6 7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선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라선상업전문학교 교장 유광호동무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자료, 선군혁명실록자료 등 4 500여건의 자료와 70여건의 강연자료를 만들어 강연선전에 리용하고있다.

혜산시 봉화중학교 교장 로성갑동무는 1만 5 000건의 참고자료를 만들어 대홍단군, 백암군의 포전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위한 강연선전을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호평을 받고있다.

철산군 철산중학교 교장 김복순동무는 위대성교양자료, 농업과학기술자료,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자료 4 120건을 만들어 지방공업공장현대화공사장에 나가 수십차례의 강연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중앙은행 자강도 화평지점 지배인 리경봉동무는 3 000여건의 탁상교양자료와 5 300여건의 경제기술실무자료를 만들어 강연선전에 리용하고있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현장에 나가 강연선전활동을 화선식으로 벌리고있다.

와우도구역인민위원회 부장 권원주,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채정철동무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자료를 만들어 강연선전을 대중의 심리와 준비정도에 맞게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연선전활동을 벌려나가는 대오속에는 모범적인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도 있다.

삼석구역 로병강연강사 최태호동무는 49년간 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구역안의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의 강연선전사업을 책임지고 강연선전활동을 패기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함흥시 흥남구역 로병강연강사 림준남동무는 전시에 발휘되였던 영웅들의 조국수호정신과 우리 혁명의 단계마다에서 체험한 시대의 선구자들의 투쟁정신을 담은 강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나가 힘있는 화선식강연선전활동을 벌리고있다.

강원도 원산시 공로자강연강사 강동호동무는 2 000여건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모내기, 가을걷이전투기간에 원산시, 문천시, 천내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가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태천군 공로자강연강사 김도현동무는 위대성교양자료, 농사와 관련된 자료를 비롯한 1만 3 000여건의 자료를 준비하여 강연선전에 리용하고있다.

백암군 공로자강연강사 한성국동무는 강연준비를 실속있게 해가지고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강연선전활동을 패기있게 진행하고있다.

온성군 공로자강연강사 허송봉동무는 47년동안 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1 930여건의 강연자료를 만들어 5 720여회에 걸쳐 42만 2 200명을 대상으로 강연선전을 진행하였다.

덕천시 공로자강연강사 서정은동무는 50년간 강연강사로 활동하면서 4 000여건의 각종 참고자료를 만들어 강연선전을 실효성있게 진행하고있다.

개성시 공로자강연강사 김명환동무는 분계연선지역들과 례성강1호, 2호, 5호발전소건설장들에 나가 건설자들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 강연선전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렸다.

강계시 공로자강연강사 류원길동무도 1 500여건의 각종 참고자료를 마련하여 강연선전활동을 화선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지금 전국각지 직외강연강사들과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화선식강연선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애국의 마음안고 물절약사업을 주인답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기와 물은 사람의 생존과 활동의 근본원천이며 공기와 물을 떠나서는 사람은 물론 그 어떤 생명체의 생존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물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자원의 하나이다. 물자원의 확보와 그 효과적리용은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물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초미의 문제로 되고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것들중의 하나로 물을 일러왔다. 그래서 랑비에 대한 비유를 《물쓰듯 한다.》고 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것은 과거의 일로 되였다.

오늘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문제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있으며 경제와 사회발전이 제약되고있다. 인구의 급속한 장성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공업, 농업용수의 엄청난 소비 그리고 물오염 등은 날을 따라 세계를 극심한 물위기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미 알려진 자료이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의 40%가 물부족난에 직면해있으며 그중 3억명은 물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물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 2025년에 가서 35억명의 인구가 물부족난에 시달리게 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물을 귀중히 여기고 물자원을 늘이며 그 관리와 리용을 깐지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그 어떤 세계적인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우리 당정책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고 누구나 애국의 마음으로 물절약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그러자면 물절약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현시기 물절약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물절약사업을 잘하자면 주민들과 상하수도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 일군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두가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물절약은 전문기관이나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절약사업에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상하수도부문 일군들과 련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물류량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며 주민들은 물절약기와 자동수위측정기에 의한 물공급체계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며 쓰는 물을 생산공급하는데 드는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은 참으로 막대하다.

애국심이란 별다른것이 아니다. 쓸데없이 켜져있는 낮전등을 끄거나 열려져있는 수도꼭지를 제때에 막을줄 아는 소중한 마음도 바로 애국심에 바탕을 두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공민적자각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누구나 한방울의 물이라도 극력 절약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은영

귀중한 물을 극력 아껴쓰자

변함없이 걷는 길

—회령시 은덕원 로동자 고옥춘동무—

지난 12월초 어느날 회령시 은덕원에서 일하는 고옥춘동무는 꿈같은 소식을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18건설돌격대원들에게 지성껏 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준 자기에게 은정넘친 감사를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자기를 둘러싸고 아낌없는 축하를 안겨주는 은덕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여러해전 어느날이였다.

또다시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온 고옥춘동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지금까지 우린 제 행복에 겨워 너무도 무의미하게 살아온것 같소. 이제부터라도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의 손을 꼭 잡는 남편인 선철민동무가 더없이 고마왔다.

《예.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발자욱에 우리도 보폭을 맞추자요.》

은덕원의 당조직과 일군들도 그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원군의 길에 나섰다. 그들은 돼지우리를 큼직하게 지어놓고 마리수도 늘이였다. 집에 색다른것이 생겨도 옥춘동무는 병사들의 기쁨넘친 모습부터 먼저 그려보며 따로 건사해두었다가 원호물자에 포함시키군 하였다.

원군의 발걸음이 잦아질수록 그의 가슴속에서는 더욱더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618건설돌격대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은덕원의 일군들은 물론 함께 일하는 배은실, 김은하, 윤미란동무들도 고옥춘동무를 적극 도와주었다.

그런데 자기의 자그마한 소행도 헤아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은정어린 감사까지 보내주실줄을 어찌 알았으랴.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던 날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마음다지였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길을 가렵니다.)

본사기자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모란봉구역상하수도관리소에서

모란봉구역상하수도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영예를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주민들의 먹는물보장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결과 주민들이 좋아하는것은 두말할것 없고 더우기는 많은 량의 물을 절약하여 전기절약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잘하는 일군보다 말은 없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아글타글 애써 일하여 실적을 내는 일군이 필요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먹는물보장이 가지는 의의와 물절약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구역인민위원회와 상하수도관리소의 일군들은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들은 우선 뽐프장들에서 상수관분리공사를 진행하여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물공급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주민들에 대한 물공급에서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비로소 방도를 찾은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상수관분리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공사를 해냈다.

그렇게 하니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든 세대들에 물이 다 공급되였다.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들은 또한 자체의 힘으로 뽐프장들의 낡은 설비들을 개조하고 부식된 상수도관들을 교체하여 양수능력을 높이고 물도중손실을 없애고있다.

그리고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배수지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살림집들에는 자연흐름식먹는물보장체계를 세워 전기를 쓰지 않고 물을 공급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많은 고층살림집물탕크들을 보수정비하고 자동수위측정기를 설치하여 물공급을 정상화하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물절약기생산기지를 꾸리고 도입하여 많은 물을 절약하고있다.

본사기자

가정에서 도

얼마전 우리가 대성구역 룡흥2동 36인민반의 한 가정을 찾았을 때였다.

쪼르륵쪼르륵…

물나오는 소리가 약간씩 들려왔다. 그러자 가정주부인 방애숙동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갔다. 그동안 우리는 인민반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렇게 극성이라니까요. 항상 수도상태를 확인하고 수도꼭지를 꼭꼭 막아 전기를 절약하였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전 인민반에서는 대학생들의 주민정치사업이 있었다.

《…집집마다에서 아침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수도상태를 확인하는것을 습성화한다면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물과 전기가 절약되겠습니까?》

주민정치사업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저마다 물을 아껴쓰겠다고 결의다졌다.

《나라에서 아무리 인민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도 절약하는게 없으면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겠어요.》

…

우리가 인민반장의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방애숙동무가 웃으며 방안에 들어섰다.

역시 모범가정이 다르다는 우리에게 그는 《물절약이자 전기절약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면서 대학생들의 주민정치사업이 있은 다음부터 전기절약, 물절약에 더 각성을 높이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정살림이자 나라살림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방애숙동무의 집에서 우리는 그 인민반 매 세대들의 주민답고 알뜰한 생활을 엿보게 되였다.

비록 작은것이지만 애국의 마음안고 절약을 잘하면 나라살림살이가 풍만해지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 윤택해질것이 아닌가.

오은별

중국에 갔던 우리 나라 정부과학기술대표단 귀국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4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과학기술대표단이 26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리주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귀국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모잠비끄에서 진행된 국제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고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모잠비끄를 방문하였던 채춘희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26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경옥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참답게 보장되는 리상사회

《인민들의 참된 삶과 행복한 생활이 법적으로 담보되는 사회에서 살고싶은것이 나의 희망이다. 동서고금의 법전들을 다 연구해보았지만 이북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높이 세워준 법은 없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다. 또한 로동과 휴식,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이것은 다 이북의 사회주의헌법이 인민적인 법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이 돈에 무참히 짓눌리고있는 황금만능의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를 한탄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어느날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제자와 자리를 같이하였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껑충껑충 뛰여오르는 학비를 더는 댈수 없어 대학을 다닐수 없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중퇴하기에 앞서 교수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다. 교수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글타글 애써왔는가를 잘 알고있는 그였다.

그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른일,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학생들이였다. 그들을 도울수 없는 교수의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날 돈이 없어 배우고싶어도 배울수 없고 병나도 치료를 받을수 없는 암담한 현실앞에 울분을 터뜨리는 제자들에게 교수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날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행복이 차례지는 우리 공화국에서 마음껏 공부하고싶은 진정을 터놓았다.

이러한 소원과 희망을 간직하고있는것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누려야 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공화국과 같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살고싶어하는것은 남녘의 뜻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품고있는 심정이다.

《공화국북반부는 전민이 만복을 누리는 리상향이다.》

《공화국북반부는 인민대중의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서 시위하며 민주민권이 활짝 꽃펴나는 참된 사회이다.》

《이북은 민족의 하늘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7천만겨레의 진정한 조국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대학생단체가 각지의 수백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이다.

그 어떤 꾸밈도 가식도 없는 청년대학생들의 진정어린 대답, 여기에는 뜨거운 인정미와 한없는 포옹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가꾸시는 인간사랑의 화원속에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람들모두가 행복하고 값높은 삶을 향유해가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한없는 동경과 찬탄이 그대로 어려있다.

언제인가 부산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주민은 동료들앞에서 《외국사람들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의례히 〈김일성!〉, 〈김정일!〉하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인다. 그것은 그분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북에 민중에게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민중중심의 법이 있어 전체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사회로 빛을 뿌리고있기때문이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광주의 한 철도역에서 일하는 로동자는 《북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지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뻐스에까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나붙어있고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과 법의 보호속에 모두가 활기에 넘쳐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공화국의 품만이 온 겨레가 함께 안겨살 은혜로운 품이다. 하루빨리 통일렬차를 몰고 북으로 가고싶다.》고 진심을 토로하였다.

근로인민들이 참다운 법의 보호속에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공화국으로 달리는 남녘겨레의 마음은 이처럼 뜨겁다.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는 남녘의 민심은 《이북에서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에 의하여 모든 민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그들은 정치적자유와 권리, 로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를 행사하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다.》고 말한 서울의 한 지식인과 일자리를 잃고 한탄하는 동료들에게 《이북에서는 근로대중이 공장과 땅의 주인인 까닭에 공장의 주인인 로동자가 해고되거나 땅의 주인인 농민이 농촌에서 쫓겨나는것과 같은 일은 있을수 없다. 이북에서는 국가가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줄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누구나 다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말한 현대그룹의 한 로동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펴나가고계신다고 한다. 그분께서 계시는 이북이야말로 인민에게 영원한 봄을 주는 락원의 세상, 그늘없이 해빛만이 있는 사랑의 화원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하에서 살고싶다.》고 격조높이 말한 태백의 탄부 등의 목소리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장군님께서 계시는 공화국북반부에 마음을 두고 사는 남녘겨레들의 신념과 의지는 굳건하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드는것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복은희

동서고금에 다시 없을 불세출의 녀성영웅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민족사에 길이 전하려는 남녘겨레의 마음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지금 남녘의 인민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절절해지는 어머님에 대한 깊은 추억을 안고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서울의 한 주민은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총탄이 비발치는 전투장마다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고 하면서 《녀사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김일성장군님은 곧 우리의 하늘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라고 하시며 언제나 사령부보위의 앞장에 서시였고 장군님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올 때에는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호위하시였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한 정치학교수도 《김정숙녀사께서는 일찌기 소녀시절에 나라찾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혈전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민족의 운명이시고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시는 특출한 공적을 세우시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녀성학회의 한 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김정숙녀사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무조건 수행해야 할 지상의 과제였다. 하기에 녀사의 사색과 활동은 모두 김일성장군님의 통일방략 실현에로 이어졌고 이남민중에 대한 애정으로 차있었다. 이 보살피심속에 이북의 각계 민중은 물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른 이남의 각계 인사들도 인생의 바른 길을 찾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남북련석회의때 북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뵙고 돌아온 백범 김구선생이 녀사께서 지어주신 옷을 친지들에게 자랑하며 기뻐한것도, 녀사께서 보내주신 친서에 접한 서울의 한 녀성운동가가 눈물을 흘리며 통일운동에 더욱 분발해나선것도 그이의 무한한 은정에 탄복해서였을것이다. 진정 김정숙녀사는 통일성업에 한몸 바치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고 하면서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조국통일성업에 이바지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안녕을 지키고 조국과 민족의 밝은 앞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탁월한 혁명가, 위대한 애국자의 한생이였다. 이처럼 한생을 빛나게 사신 김정숙어머님이시기에 남녘인민들은 오늘도 어머님의 자애로운 그 미소를 못 잊어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옷깃여미고 솟구치는 경모의 정을 한껏 터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김정일장군연구 서울시민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은 홈페지들에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함께 찍으신 사진을 모시고 《백두산녀장군의 력사—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신 고결한 생애》, 《백두산녀장군의 인정미—한장의 모포에 깃든 사연》 등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또한 조선의 태양을 안아올리시여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놓으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칭송하는 노래들도 실었다.

희세의 전설적녀장군을 영원히 가슴속에 모시고 살려는 남녘인민들의 그리움의 세계는 출판물들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남조선의 많은 출판물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앞을 다투어 모시고 그이를 흠모하는 글들을 싣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에는 《김일성세기인 20세기를 빛내이시고 김정일세기인 21세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숙녀사를 천년만년 자랑하자》, 《조선의 미래를 안아올리신 항일의 녀장군께 영광드리자, 감사드리자》,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미래를 펼치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녀사》 등의 제목으로 된 글들이 실리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을 보여주시였으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정녕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 기념행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이 19일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독립국가협동체지역위원회 일군들과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행사에서 연설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9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이시며 끊임없는 전선시찰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며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올수 있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숙어머님의 념원대로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그 위훈 빛나는 김정숙녀사》, 독창 《선군닐리리》, 가야금독주 《백두산에 핀 꽃》, 무용 《기러기떼 날으네》 등이 올라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23일 론평을 발표하여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끝끝내 연평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린데 이어 이날 또다시 경기도 포천일대에서 최대규모의 합동훈련을 강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리명박《정부》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는 전쟁만을 불러올뿐 평화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리명박《정부》가 더 이상 군사적도발에 매달리지 말고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것을 요구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범민련) 남측본부가 24일 서울 홍제동의 보안수사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체핵심성원들에 대한 괴뢰공안당국의 폭압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공안당국이 단체의 장과 사무처장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낸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안당국이 연평도포격사건과 관련한 단체의 론평을 문제시하고 단체가 범민련결성 20돐 기념행사를 통해 북을 찬양, 고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워 이러한 폭거를 가하고있다고 회견문은 밝혔다.

회견문은 미국과 리명박《정권》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대결책동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시기에 이러한 행위가 감행되고있는것은 당국이 자주통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해 투쟁해온 합법적단체의 성원들에 대한 이러한 폭거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라고 회견문은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리명박《정권》이 류례없는 전쟁책동과 파쑈탄압이 가져올 후과와 과거 독재자들의 말로에 대해 깊이 명심하고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수분자의 망언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21일 《한나라당》패거리의 망언을 규탄하여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조전혁이 이날 저들의 원내대책회의라는데서 민주로동당을 북과 련결시키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줴쳐댄데 대해 언급하였다.

민주로동당이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여 그 무슨 《색갈론》을 운운하며 정당을 모해하려드는 이자의 망동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저들 패당과 전 미국무장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비법적인것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로동당을 걸고들며 전쟁《정권》을 비호하는 조전혁이 당장 사퇴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화되는 일본과의 군사적결탁

피뢰패당의 도발적인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미, 일, 남조선호전세력이 반공화국공조에 골몰하는 한편 제 리속차리기에 여념이 없다.

주목되는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기회를 엿보아온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수상은 연평도포격사건을 거들며 조선반도《유사시》 그 무슨 《자국민피난》과 《랍치피해자들의 구출》문제를 입에 올리였다. 그는 일본《자위대》가 직접 나서서 남조선을 통과하여 행동하기 위한 문제를 남조선당국과 론의할것이라고 떠들었다.

이것은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을 공공연히 시사한것이다. 한마디로 일본반동들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골수에 배긴 재침기도를 실현하는데 써먹으려 하고있으며 그를 위해 남조선보수패당을 구슬려 침략의 길을 열어보려 하고있다.

문제는 남조선피뢰들이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항의하기는 고사하고 그에 동조해나서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피뢰패당은 일본수상의 망언과 관련하여 협의해볼 문제라는 립장을 밝히였다.

이것은 남조선피뢰들이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해 재침을 꿈꾸는 일본반동들과 서슴없이 손을 잡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반동들과 북침전쟁도발의 길에서 적극 공모결탁하고있다.

지난 10월 부산앞바다에서 진행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린 피뢰들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에 일본《자위대》 무력이 참가하였다.

한편 얼마전에 있은 미일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피뢰군이 《참관》의 명목으로 참가하였다. 남조선당국과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결탁을 미국은 적극 조장하고있다.

얼마전 미군부의 고위관리는 남조선과 일본이 《안보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일본의 재침세력과 야합하여서라도 자기 동족만 해칠수 있다면 그만이라고 타산하고있는 극악한 매국역적들인 보수패당의 망동은 지금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을 비롯하여 각계는 일본수상의 《자위대》파견망발을 한결같이 비난하면서 당국이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조선은 일본〈자위대〉가 진출할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하면서 재침열에 들뜬 일본당국자들의 책동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신문은 일본당국자들이 《천안》호사건때에도 북남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저들의 리익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고 하면서 《자국민피난》이라는것은 허울좋은 구실에 불과하고 진짜속심은 일본의 군사개입을 합법화하자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자위대》를 조선반도에 파견하려는 일본의 처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것으로서 당국이 그 위험한 기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다른 언론들도 북남사이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를 리용하여 《자국민피난》따위를 입에 올리는 일본당국자의 망언은 명백한 재침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항의의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보수패당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남조선피뢰들이 북침야망에 환장하여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에 대처한 우리 민족의 각성과 단결된 투쟁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

광기어린 적대의식고취소동

최근 조선서해의 연평도일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들이 계속되는 속에 남조선에서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는 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연평도포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렬되여서는 안된다.》느니, 《최상의 안보는 단합된 힘》이라느니 하면서 저들의 무모한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단죄규탄하는 각계의 여론에 도전하였다. 한마디로 남조선집권자는 평화를 파괴하는 저들에 대한 각계층의 규탄여론을 왕청같이 동족을 반대하고 대결기운을 조장하는데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0일 괴뢰들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규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평도에서 또 한차례의 포사격훈련을 감행하여 이 일대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대결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남조선호전광들의 포사격훈련이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에 파국적후과를 끼치는 반민족적, 반평화적범죄행위라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은 괴뢰호전광들의 망동을 위험천만한 전쟁도발행위로 락인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하여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한총련》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련일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여 당국의 무분별한 도발행위가 온 민중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고 사태를 파국에로 끌어가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당국이 전쟁불장난소동을 걷어치우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호전광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피타는 절규와 온 겨레의 평화지향을 짓밟고 미욱한 배짱놀음을 벌리면서 끝끝내 연평도에서 포사격훈련을 감행하고야말았다. 이것은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감으로써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극악한 대결기도의 발로였다.

죄를 저지르고 일을 치고야만 괴뢰들은 저들의 범죄행위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더욱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것이 두려웠다. 하여 《국론이 분렬되여서는 안된다.》느니, 《단합》이니 하는따위의 나발을 불어댄것이다. 괴뢰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작을 늘어놓은데는 한발 더 나아가 남조선인민들의 의식을 동족에 대한 적대감으로 일색화하려는 기도도 깔려있다.

남조선집권자의 망발이 있기 바쁘게 국우보수언론들이 거기에 적극 곡조를 맞추고있는것도 그에 대한 립증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집권자의 망발에 찬사를 보내면서 《안보비상은 연평도훈련이후에도 계속된다.》느니, 《단합을 이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느니 하고 민심을 소란시키고 대결을 고취하는 글들을 쏟아내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보수패당이 연평도포사격훈련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침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고 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이번 연평도포사격도발을 앞두고 그무슨 《강력한 대응》이니, 《자위권수준에서의 대응》이니 하고 요란스레 떠들었다. 군부패거리들만이 아니라 사복을 입은 어중이떠중이들이 머리를 쳐들고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고 고아대며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그들의 대결전쟁나발은 연평도에서의 포성 못지 않게 요란스러웠다. 그것은 결국 보수패당이 연평도포사격도발을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번 연평도포사격도발을 전후하여 남조선호전광들은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 끌어들이였으며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서해 5도를 군사요새화하라.》는 폭언을 늘어놓으면서 졸개들을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에로 더욱 부추기고있다. 괴뢰들은 연평도포사격훈련이후 그 누구의 《추가도발가능성》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전쟁광신자, 도발자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무력증강과 전쟁장비들의 전연배비, 외세와의 군사적결탁강화와 사회전반에 대한 적대의식고취, 그것은 전쟁도발이라는 하나의 목적에로 이어진 련결사슬들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도발자, 평화의 교란자는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한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며 그들의 북침야망은 날을 따라 더욱 무모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

남조선강점 미군의 횡포한 만행

지금 남조선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폭행과 강도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경상북도 왜관의 미군기지에 소속된 3명의 미군은 대구시의 중구에서 집으로 가던 한 주민을 무작정 폭행하여 중태에 빠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자들은 이어 중구 남산동에서 택시운전사에게 달려들어 손전화기와 많은 량의 돈을 강탈하고 뺑소니를 쳤다.

또한 이 범죄자들은 경상북도 왜관역앞에 서있던 2명의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나면서 3대의 택시를 파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강점 미군범죄자들은 저들의 죄를 부인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우려를 자아내는 환경오염

남조선에서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경상북도, 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집짐승이 근 20만마리에 달함으로써 지하수 및 토지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질것이라고 한다.

특히 지하수를 먹는물원천으로 하고있는 지역들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현재 집짐승들을 매몰한 곳에서 생긴 오염된 물이 땅우까지 배여나온 곳도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비정규직로동자들 생존권사수투쟁을 벌리는

상전과 주구의 위험한 반공화국공조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내외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군사적도발소동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다. 지난 20일 조선서해의 연평도일대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진 포사격훈련과 그 이후 동해에서 감행된 괴뢰해군함대의 해상기동훈련, 전선중부에서 벌려놓은 괴뢰륙군과 공군의 대규모적인 합동화력훈련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 엄중한 현실앞에서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위험한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날로 심화되고있는 통치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친미공조와 동족대결에서 찾고있다. 보수패당은 지금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하고있다. 희세의 사대매국정치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쑈독재통치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생존권마저도 무참히 짓밟았다. 끊임없는 정쟁과 권력싸움으로 정치는 개판으로 만들고 경제와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뜨렸다. 그리고도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며 치부와 향락에 미쳐돌아가는 보수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은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으며 이로 하여 보수패당은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남조선의 현실은 보수당국의 대내외정책이 총파산에 직면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바빠맞은 보수당국은 친미공조와 동족대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고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로부터 고안해낸것이 바로 연평도포사격도발이다. 괴뢰들은 조선서해상에서 군사적도발을 련이어 감행함으로써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였다.

괴뢰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응징》을 떠들어대며 《전투기와 함포 등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른바 《자위권행사》를 운운하면서 새로운 군사적도발을 기도하였다. 한편 미일상전에게 《추가도발저지를 위한 공동대응》과 《긴밀한 협력》을 구걸하고 미핵항공모함전단을 조선서해에 끌어들여 또 한차례의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요란스레 벌려놓았다. 이러한 속에 괴뢰들은 최신전쟁장비들을 연평도에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고 지난 20일 끝끝내 포사격도발을 감행하고야말았다. 이것으로 남조선당국은 지난 11월의 도발사건때 당한 참패를 어떻게 하나 만회하고 기어이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호전적흉심을 세계면전에서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괴뢰들을 연평도포사격도발에로 부추기고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조장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으면서 긴장격화를 통하여 실패를 거듭하고있는 대아시아정책과 대조선전략을 수습하고 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보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긴장되고 대결이 심화되면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다. 연평도포격사건으로 리득을 보게 된것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신들의 평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번에도 미국은 군부우두머리를 서울에 급파한다,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연습을 강화한다, 《련합대응태세》를 강화한다 하면서 괴뢰들을 우리와의 전면대결에로 부추기였다. 지어 남조선괴뢰들의 연평도포사격훈련계획에 대해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느니, 《군사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호전광들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였다. 미국이 연평도포사격훈련에 통신, 의료지원 등의 명목으로 20명의 미제침략군을 참가시킨것은 명백히 침략적인 반공화국공모결탁행위이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괴뢰들이 북침전쟁도발의 길로 나아가도록 극구 떠밀어주었다.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위험한 공모결탁에도 불구하고 조선서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은것은 우리의 배심과 자제력, 확고한 평화수호의지가 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보호가 없이는 한시도 권력을 유지할수 없는 추악하고 비겁하기 그지없는 괴뢰패당이 상전에게 의존하여 감히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고있지만 차례질것은 파멸밖에 없을것이다. 괴뢰들이 지금처럼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계속 헤덤비며 도발을 걸 경우 호전광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서운 징벌이 가해질지 모른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의 평화수호의지를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최철순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위력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선군정치는 가장 옳바른 정치방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와 뽈스까에서는 집회가, 로씨야에서는 토론회와 영화감상회가 15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자력갱생연구소,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로씨야 리아—쏘유즈음악출판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념원대로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로씨야 리아—쏘유즈음악출판회사 총사장 보브로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가장 존경하는분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군사중시정치를 펼치고계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에 대하여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조선식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정치이다.

뽈스까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핀란드에서는 강연회와 사진전시회가, 파키스탄에서는 토론회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좌담회가 17일과 18일에 진행되였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파키스탄 신드주정부,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인도네시아 씨나르 안쫄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주석의 군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는 믿음직한 혁명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군사적위협과 전횡에 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지켜나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정치의 결과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 사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하였다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 씨나르 안쫄회사 부사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각하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고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필승불패의 기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장군각하의 탁월한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도 조선의 경제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났고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멀지 않은 앞날에 조선이 반드시 통일된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전변되리라고 확신한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시대의 걸출한 최고사령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17일 브라질사회주의청년동맹은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높은 정치적수완과 비범한 군사적자질을 겸비한 리상적인 최고사령관이시다.

그이께는 필승의 보검이 있는바 그것은 바로 선군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선군으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지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일심단결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국방력강화에 선차적힘을 넣으신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선군으로 무비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과시해나가신다.

그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이시며 제일가는 배짱가이시다.

긴장하고 첨예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정확한 판단과 단호한 결심,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들의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담력과 배짱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참으로 김정일령도자는 선군의 보검을 틀어쥐고 군대와 인민을 필승에로 이끄시는 시대의 가장 걸출한 최고사령관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먄마신문이 특집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나툰 방글라》 13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와 항일의 녀성영웅의 사진을 모시고 《김정일최고사령관과 불패의 강국》,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녀사의 념원》, 《미래를 꽃피우신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며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쳐올수 있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밑에 우리 나라의 정치사상진지가 백방으로 강화되고 군사진지가 철옹성같이 다져졌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펼쳐진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의 나날들에는 병사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많이 전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그에 대한 사실자료들을 소개하였다.

같은 날 먄마신문 《씨티 뉴스》는 《혁명위업승리의 보검》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김일성조선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다그쳐나가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커다란 비약을 일으키도록 이끌고계신다.

조선이 거둔 모든 성과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단결된 영웅적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였다.

백방으로 강화된 조선의 정치사상진지, 군사진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라오스, 몽골신문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행안》 11월 16—30일부는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누리에 높이 떨치시는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군사진지가 철옹성같이 다져졌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극도에 이른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돌리시고 끊임없는 군부대시찰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대를 자체의 독특한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군력강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모든 지휘관들이 독창적인 전법과 군사지식을 체득하며 작전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였다.

또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임의의 전투정황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높은 군사기술적자질과 튼튼한 체력을 가진 싸움군으로 준비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발전된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국방공업에 기초하여 전군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다.

몽골신문 《나쓸렐 타임스》 16일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사상진지가 백방으로 강화되였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일심단결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마련되였다.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전반적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러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른 조선은 지금 경제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따라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길이 위용떨칠것이다.

⁂ ⁂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단장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이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데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꾸바혁명무력 군사대표단 단장 알바로 로뻬스 미에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이 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의 무장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린다.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 단장 응오 쑤언 릭은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은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칠 열의에 넘쳐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이러한 영웅적군대를 가지고있기에 조선은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리라고 믿는다.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단장 통반 쌩아펀은 조선인민은 강위력한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사회주의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영웅적인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적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섬멸적타격을 가할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중국 군민관계를 강화할데 대한 통지문 하달

중국민정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최근 공동으로 2011년 새해와 음력설기간에 각 지방과 부대들에서 군대를 옹호하고 후방가족을 우대하며 정부를 옹호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한 통지문을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각 지역과 부문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군대를 옹호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대대적으로 발양하여 부대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며 각 부대들에서는 주둔지역의 경제 및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명절기간 각 지방들에서 주둔지역 부대관병들에 대한 위문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모잠비끄대통령 아르만두 에밀리우 게부자가 21일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10년동안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그 수행을 위해 투자를 늘이는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전망은 락관적이라고 하면서 그는 가까운 앞날에 경제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침략전쟁에 뛰여들려는 일본당국의 불순한 기도

일본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침략전쟁에 뛰여들려는 불순한 기도를 오래전부터 추구하여온데 대한 사실자료가 최근에 폭로되였다.

22일 일본의 한 신문이 외무성의 문서자료를 공개하여 밝힌데 의하면 1969년 7월 당시 수상 사또는 미국무장관과의 모의에서 조선반도《유사시》 남조선을 《후원》할것이라고 떠벌였다 한다.

그는 오끼나와미군기지만이 아니라 일본본토의 기지들도 모두 남조선을 《후원》하게 허용할 생각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에짚트에서 간첩망 적발

에짚트에서 최근 이스라엘간첩망이 적발되였다.

20일 에짚트안전기관은 2명의 이스라엘인과 그들에게 매수된 1명의 에짚트인이 나라의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다가 발각되였다고 밝혔다.

간첩들에 대한 재판이 곧 진행되게 된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호소

알제리수상 아흐메드 우야히야가 19일 민족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나라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민족적화해가 이룩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성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주민들이 나라의 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수호하기 위해 있을수 있는 테로행위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모순되는 언어유희

며칠전 미외교당국자가 한 기자의 질문에 모순되는 대답을 하여 여론의 말밥에 오르고있다.

이날 한 기자가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벌리고있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는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정부의 립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미외교당국자는 자기는 국민들의 그러한 감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상황을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못박았다. 그의 대답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넉두리이다. 그의 말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가 미국국민들의 반전감정을 《존중》하는듯이 표방한것은 일종의 언어유희이다. 그의 진짜소리는 뒤말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턱대고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든 개의치 않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계속 강행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곧 미당국의 립장과 의사를 대변한것이다. 실지로 미국은 자기 나라와 대양건너 멀리 떨어져있는 아프가니스탄《평정》을 운운하며 군사작전을 장기화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미국의 《안보》와 인연이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것이다. 미지배층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국가안보》와 련관시키는것은 억지주장이며 미국의 전범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내외민심은 그들의 얄팍한 잔꾀를 꿰뚫어보고 침을 뱉고있다.

채일출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애국주의교양강화조치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애국주의교양기지 해설원들의 경연을 조직하였다.

경연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보다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자》라는 주제밑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자치구에서는 현재 274개의 애국주의교양기지를 꾸려놓고 운영하고있다.

비행장현대화공사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삐낭주에 있는 국제비행장현대화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기간 비행장의 하부구조와 봉사시설들을 완비하고 안전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정부에서 공사에 많은 자금을 돌리였다 한다.

새 교육법 채택

볼리비아정부가 20일 새 교육법을 채택하였다.

법채택은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교육조건을 보장해주며 식민주의적페단을 극복한 새로운 교육방식을 구현해나가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법에 따라 나라에서는 여러 민족들의 문화전통과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다민족교육제도를 수립하며 토착민들의 교육문화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원유정제공장 건설

먄마의 만달라이시에서 새 원유정제공장건설이 시작되였다.

공장의 하루정제능력은 5만bbl에 달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미국에서 많은 가정들이 계속되는 수입감소로 생활난을 겪고있다.

21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임금로동자가정 3세대중 거의 1세대가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고있다고 밝혔다.

—유럽인들속에서 경제형편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20일 유럽동맹위원회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12월현재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소비자신용지수가 11월에 비해 1.6점 또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동맹 통계국은 17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올해 10월에 건설부문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췰란드인들속에서 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21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2월현재 경제전망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지수가 11월에 비해 7점 또 떨어졌다.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시에서 최근 미성년들에 대한 성폭행을 일삼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한편 9일 뛰르끼예의 동남부지역에서 마약밀수행위가 드러나 381㎏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8명의 마약관련범죄자가 붙잡혔다.

—뉴질랜드에서 교통혼잡이 날로 더욱 우심해져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고있다.

14일 이 나라 신문 《뉴질랜드 헤랄드》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오클랜드시에서만도 해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액이 10억NZ$ (뉴질랜드딸라)에 달하고있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규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빠스가 22일 한 외교석상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사작전도 지역의 평화과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중동평화를 위한 모든 국제적노력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미군기지이설을 반대하여 집회

일본의 오끼나와현에서 얼마전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현정부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약 5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군기지의 현내이설 절대반대, 일미합의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현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덴마기지를 현내에 이설하려는 당국의 책동을 단호히 규탄, 배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중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 8일 중국에서 전국미성년사상도덕건설사업화상회의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선전부장 류운산이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미성년사상도덕건설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해 강조하고 미성년사상도덕건설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당과 국가의 위업은 오늘의 미성년들에 의해 계승되며 조국과 민족의 미래도 오늘의 미성년들에 의해 개척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사상을 더욱 통일시키고 인식을 높이며 미성년사상도덕건설사업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당과 정부, 대중단체의 공동관리,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의 조직적인 협조, 유관부문들의 책임성제고, 전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지도체계와 사업제도를 완벽하게 수립하며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조치를 취하면서 이 사업을 끝까지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중국당과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건설의 근본으로 틀어쥐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자, 혁명의 믿음직한 후계자들로 키워내는데 힘을 넣어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상도덕건설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부단히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종의 우수한 도서를 소개하는 제7차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도서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인기가 가장 높고 우수한것들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하고있다.

중국에서는 추잡하고 색정적이며 저속한 내용을 게재하고 전파시키는 웹싸이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있다.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그러한 내용을 전파시키는 웹싸이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우 공안기관에 넘겨 법적책임을 추궁하고있다.

지난 7월 전국《황색숙청 및 비법출판물타격》사업소조는 베이징에서 좌담회를 열고 인터네트에서의 추잡하고 색정적인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행동을 총화하는 한편 당면한 정세를 분석하고 다음단계 사업을 연구, 포치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선전부장 류운산은 개혁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대세에서 그리고 민족정신을 키우고 민족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데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힘있는 조치로 인터네트에서의 추잡하고 색정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부단히 이룩함으로써 건전하게 발전하는 네트워크문화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상반년에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2 300만여부의 각종 비법적인 출판물들이 압수되였다.

최근년간 중국국가보도출판총서는 《문화환경보호공정》을 실시하여 출판물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시장을 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국에서는 자본주의사상문화를 류포시키는 범죄자들을 엄하게 처리하는 사업도 강하게 내밀고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각급 인민법원들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색정물을 제작, 복사, 출판, 판매, 류포시키거나 추잡한 정보들을 퍼뜨린 사건들과 관련하여 모두 1 164건의 재판을 결속하였는데 이에 따라 1 332명이 형사책임추궁을 받고 그중 58명이 5년이상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얼마전 중국최고인민법원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말부터 전국적으로 인터네트와 손전화기들을 통한 추잡하고 색정적인 정보류포를 타격하는 특별행동이 진행된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들이 《황색숙청》에 대한 도수를 높이도록 하였다고 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색정물제작 및 류포에 대한 타격의 도수를 높여 죄행이 엄중한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심화되고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사업은 광범한 군중의 지지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은 실패작

최근 미집권자가 아프가니스탄전략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미집권자는 자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련을 겪고있지만 《목적을 달성》하고있다느니, 새 아프가니스탄전략으로 《알 카에다》가 그 어느때보다도 커다란 압박을 받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무슨 《성과》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로망》을 격멸하자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말꼬리를 달았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근기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어느때 가서든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보다 앞서 국방장관 게이쯔를 비롯한 미군부의 고위인물들도 현 미집권자가 내놓은 아프가니스탄전략이 《실효》를 거두어 탈리반이 통제하는 지역이 1년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승리》를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맥빠진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전략검토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지만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실토한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당장 일을 칠것처럼 큰소리를 치며 내놓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이 뜻대로 진척되지 않는데 대한 미집권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다.

하기는 그럴만도 하다. 지난해말 미집권자는 무력증강을 골자로 하는 새 아프가니스탄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이것이 실현되면 탈리반과 《알 카에다》의 기세를 꺾어놓을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2011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를 진행한다는 시간표까지 정해놓았다. 미국의 새 아프가니스탄전략에 따라 이라크에서 철수한 일부 미군무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되였으며 《테로세력소탕》작전들이 강도높게 진행되였다. 그러나 일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이 저들의 《승리》가 확정적이라느니, 탈리반의 잔여세력소멸은 시간문제라느니 하고 으시대였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탈리반세력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장성강화되여 도처에서 수시로 미군을 조겨댔다. 아프가니스탄강점 미군은 사방에서 얻어맞기만 하고 그에 대처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외신들까지도 탈리반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고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보도하였다.

바빠난 미집권자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을 교체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지만 형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강점 미군의 허점은 나날이 더욱 드러났으며 탈리반세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였다.

《정예》를 자랑하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 미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이야말로 한심한 전쟁, 망신스러운 전쟁이라는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러거나말거나 미집권계층은 아프가니스탄전략의 그 무슨 《실효성》에 대해 념불처럼 외워댔다. 그러던중 얼마전 미집권자가 예고도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불쑥 나타났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사태는 참혹하였다. 보는것마다, 귀에 들리는것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것들이였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였다.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미군사상자만 늘어났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지금까지 약 470명의 미군이 죽었는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개시된 이래 년중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들이민 나라들에서도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있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것은 미국뿐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터져나오게 하고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강점 미군은 그야말로 승산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전쟁을 하고있다. 산악지대와 지방주민들에게 의거하고있는 탈리반세력을 찾아내지도 못하고있으며 뚜렷한 공격목표도 없이 헤덤비고있다. 이러한 사태는 미집권자로 하여금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수없이 그는 한해전에 자기가 발표한 아프가니스탄전략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항쟁세력을 제압하는데서 별로 은을 내지 못하였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미집권자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성과》니 뭐니 한것은 일종의 자화자찬이고 자체위안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 무슨 《뾰족한 수》를 내놓아도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확신하고있다.

지금 세계언론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을 《실패한 전략》이라고 비난조소하고있다. 요컨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이 실패작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

ㄱ-01236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